

구약 성경(타나크)

- 토라 (Torah), 느비임 (Nebiim, Prophets), 케투빔 (Ketubim, writings)

유대교의 히브리 성경 배열

토라	느비임		케투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상.하 한 권) 열왕기서(상.하 한 권)	시편 욥기 잠언 메길롯트 (룻기/칠월절, 아가/유월절, 전도서/장막절, 애가/예루살렘 멸망 기념일: 아브람 9일, 에스터/부림절)
	후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예언서	다니엘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

토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상.하) 열왕기서(상.하) 역대기서 (상, 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한 권인가? 39권인가?

- 총 39권 (24권), 약 32명의 저자, 모세로부터 에스라까지 약 1100년에 걸쳐서 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집필됨
- 다양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의 퍼즐을 맞추지 않고 접근하면 전혀 다른 메시지로 오해할 수 있다!

- 성경의 27%가 예언
 - 31,124구절 중 예언은 8,352절
 - 구약의 28.5%
 - 신약의 21.5%
 - 예언을 담고 있지 않는 성경: 룯기, 아가서, 빌레몬, 요한3서 뿐이다.
-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인가?
 예언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견한다. 이런 점에서 구약 예언의 대부분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진단하는 성격을 가진다.

- 예언은 언어의 형태로 주어졌다! (대부분은 시)
 -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 다양한 문학적 성격과 장르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 이미지, 간결성, 평행법에 주목
- 사51:4 내 백성이 내게 주의 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 은유, 직유, 의인화 (신인동형론), 환유/제유, 언어유희
 (사5:7) 공평 (미쉬파트)을 원하였으나 포학 (미쉬파크)을,
 의 (체다카)를 원하였으나 부르짖음(체야카)를...

선지서의 기본적인 메시지

-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촉구
-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열방을 포함한다.
- 심판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미래의 회복에 대한 소망

- 우상숭배:
- 사회적 불의:
- 종교적 의식주의:
- 미 6:6-8
- 사1:11-13
- 회개하라!
- 돌아오라!

- 오바다, 나훔, 요나 – 선지서의 기본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지만, 기본적인 메시지 자체는 가지고 있다.
-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 후기 선지자.
 - 공동체 건설 (성전 재건)
 - 미래에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에 초점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나나?)

예언서 해석의 걸림돌들?

- 땅: 잃어버린 땅에 대한 회복
- 예언적 원근법
- 조건적 예언
- 비유적 언어
-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상관관계
- 미래 왕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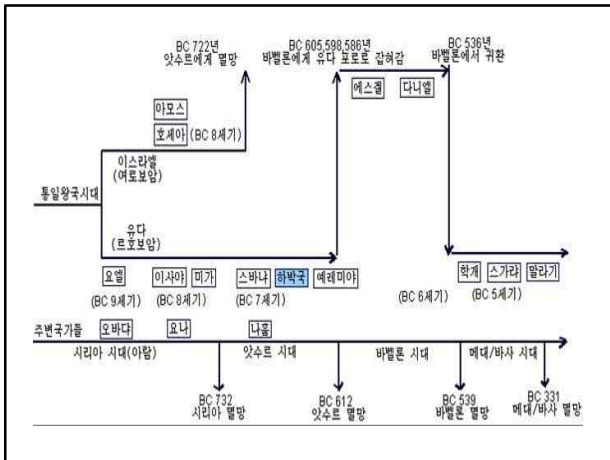
선지자

- 선지자(נביא). "말하는 자" -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 (대언자)
- 선견자 (נאָר). "보는 자" - 보다 일반적인 명칭이었음. 기능적으로 강조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림
- 선지자의 역할
 - 말씀을 대언
 - 미래를 예언
 - 시대의 개혁을 외침
- 방편? 꿈/ 환상/ 음성/ 현현
- 전달? 선포/ 상징적 행위/ 시각적 교훈
- 사명?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개인과 사회의 삶을 개혁 → 율법에 기초 →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 예나 지금이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직업적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함 (계시의 종교화)
 - 시대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역 (종말론적 의식없이 현재에 안주하는 가르침) → 위로와 평안이 중심 메시지
 - 옛것을 보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새것에 폐쇄적임
- (심지어 하나님 조차도..) → 현상 유지
 - 인기영합적, 인간 중심적 윤리

- 아브라함
- 모세
- 사무엘
 - 선지 학교의 등장
- 엘리야: 선지 시대의 문을 연 인물로 대표
- 고전 선지자들
- 기록 선지자들
- 세례 요한
-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

1. 유다 예루살렘
2. 웃시야 왕이 죽던 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3. 아들들: 상징적 이름들
 - 스알야습: 끼친 자 돌아오라 (7:3)
 - 마할살랄하스바스: 급히 뺏으리라 (8:3-4)
4. 이사야의 승천기- 므낫세에 의해 순교

그의 시대

- 웃시야 왕의 죽던 해- 유다 번역의 종식!
- 밖으로는 앗수르의 팽창
 - (디글랏빌레셀 3세,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 산헤립)
- 내적으로는 영적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
- 외국과의 동맹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 예루살렘 성에 대한 헛된 확신

이사야의 소명

- 이사야 6:1-13
- 영광의 보좌와 하나님을 뵈
- 숯불 환상과 소명
 -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 그루터기 환상

이스라엘 멸망기의 국제 정세

- 디글랏 빌레셀 (745-727)의 서방원정
 - 므나헴의 통치 연대 (752-742)
 - 디글랏 빌레셀은 743년 아르파트 지역으로 원정을 나왔으며 이 때에 므나헴, 르신, 히람 등이 조공을 바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르곤

- 이사야 20:1
- 살만에셀 5세가 반란을 일으킨 호세아를 징벌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간 전쟁을 치름.
- 누가 사마리아 성을 최종적으로 정복하였는가?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
- 사마리아는 언제 멸망당했는가? 723? 722?
 - 사르곤은 722년 겨울에 왕이 됨
 - 왕하 17:1-6 바벨론 연대기는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정복하였다고 언급함.
 - 3년간의 포위 공격과 함락, 그리고 23,390명이 포로가 됨.

사르곤

- 사르곤 2세는 720년 서방원정 → 사르곤이 사마리아를 공격
- 사마리아 정벌 후 사르곤 2세는 유다와 팔레스틴을 공격하고 이집트 세력을 축출
- 716년에 다시 팔레스틴을 공격하고, 이집트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음
- 712년 아스돗과 갓을 멸망시킴
- 710년 바벨론을 다스렸고 자신을 위한 궁전을 지음
- 705년 전쟁터에서 뜻하지 않게 죽음
- 이사야 14:4b-21

히스기야 (?-686)

- 호세아 9년 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히스기야 6년? → 히스기야 즉위는 729년
- 절대 연도 701년 산헤립의 침공이 히스기야 14년? 그렇다면 즉위년은 715년.
- 호세아 9년과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 아하스와의 공동통치 가능성은?
- 29년 다스림은 단독 통치 시작 (715년)으로부터?
-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은 존재했는가?
- 왕하 16:4, 10-18; 대하 28:3-4, 23-25
- 대하30:1, 5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사르곤과 히스기야

- 720년-717년 사르곤 비문에는 “저 먼 나라 유다를 복속시킨자”라는 언급이 나온다 (ANET, 287).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동시에 서부에도 반란을 일으켰을 가능성?
- 716년경 사르곤의 원정에서 그는 이집트 국경까지 진격하여 이집트의 오소르콘 4세로부터 예물을 받고 물러남 (ANET 286). 이집트 정착촌을 만들어 앗시리아인과 이집트 인을 혼합시켜둠.
- 713-711년에 계속된 블레셋 아스돗의 반란을 진압 (ANET 286-7). 아스돗 왕 아주리의 반란 획책에 다른 나라들이 동조. 사르곤 비문에는 유다, 에돔, 모압 등도 반란에 연루되었음을 언급한다.

사르곤과 히스기야

“블레셋, 유다, 에돔, 모압, 섬들에 살면서 내 주 앗수르에게 조공과 타마르투 예물을 바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은 이집트의 왕 피루에게 나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 일으키고자 뇌물과 함께 무수한 악한 거짓말과 꾀불건의 말들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동맹자가 될 것을 부탁하였다 (ANET, 287)”

- 이집트의 도움이 없었고, 블레셋은 멸망, 유다는 더욱 앗시리아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르곤과 히스기야

- 사르곤의 갑작스러운 죽음 → 각국의 반란으로 이어졌는데, 히스기야도 반란에 동참했다.
- 히스기야는 밀로를 건축하고 요새를 세움. 성안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로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다.
- 주변국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블레셋을 공격하여 정벌하였는데 이는 앗시리아의 세력권 안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군사적 힘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산헤립과 히스기야

- 산헤립은 먼저 메소포타미아의 반란을 제압한 이후 시리아 팔레스틴으로 원정 (701년).
- 먼저 블레셋을 정복하고 히스기야의 세력아래 있던 46개 성읍을 정복 히스기야의 항복을 권유 (왕하 19장)
- 이사야의 활동 (왕하 19:6-7) 으로 항복하지 않았고, 이 때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의 군대가 나타나서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항복하고 조공을 바친다.

산헤립과 히스기야

- 산헤립의 침공은 한번인가 두번인가? (왕하 18-20)
 - 18:13 히스기야 14년
 - 18:16-17절의 연결?
 - 20:35-37에 대한 이해?
- 히스기야의 수로 건축!
- 기혼 시내로부터 연결된 실로암 터널. 양쪽 끝에서 수로를 파서 가운데서 만나도록 작업. 예루살렘 지하 암반을 1/3마일 정도 관통.
- 실로암 터널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비문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문

산헤립과 히스기야

- 나의 세 번째 원정에서 하티를 쳤다... 아무루의 모든 왕들- 삼시무루나의 므나헴, 시돈의 투바루, 아르왓의 압딜리티, 비블로스의 우루밀키, 아스돗의 미틴티, 뽀암몬의 부두일리, 모압의 캄무수넛비, 예돔의 아이아람무 등은 내게 값진 예물과 많은 타마르투 예물을 가져와 내 발에 입맞추었다. 그러나 내 명에를 지지 않으려 했던 아스글론 왕 시드키야와 그의 가족신들, 부인, 자녀, 형제들... 사로잡아 앗시리아로 보냈다... 나는 원정을 계속하여 뽀다곤, 욥바, 바내바르카, 아주루, **내 발 앞에 꿇지 않았던 시드키야에게 속한 성읍들을 단번에 포위공격하여 정복하고 전리품을 가져왔다...**

- 유대인 히스기야는 나의 명에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강한 성읍들, 요새화된 성채들 46곳과 그 근방의 작은 촌락들을 공격하였는데... 나는 그 성읍들에서 남녀노소를 합하여 200,150명과 말, 노새, 나귀, 낙타 등을 전리품으로 삼았다. 나는 그를 그의 왕도인 예루살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죄수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나는 그의 나라를 축소시켰으나 주군인 내게 바쳐야 할 조공과 카르투예물을 이전보다 더 늘려서 매년 바치게 하였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나의 왕으로서의 위엄에 압도당한 히스기야는 그가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왕도 예루살렘에 집결시켰으나 그를 버린 비정규군과 정규군들을 나중에 나는 나의 왕도 니스웨로 보냈다 (ANET, 287-288).

이사야서 연구사

- 전통적으로 이사야는 한 사람 즉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통일성 있는 작품으로 알려짐
- 12세기- 이븐 예즈라: 통일성이 있나?
- 18세기- 아이히호른: 39장과 40장 사이에 간격이 있지 않나?
- 19세기- 뉘(B. Duhm)이 비평적 입장을 완성
 - 제 1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
 - 제 2 이사야: 540여년 경 기록
 - 제 3 이사야: 느헤미야 시대의 작품
- 쿨란 사본 이후 정당성을 잃었으나 현대의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사야를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이해한다

- 제 1 이사야안에서도 통일성은 의심받았다.
 - 36-39장은 왕하 18-20장과 매우 유사함
 - 13-14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시대착오?
 - 24-27장은 이사야의 묵시록인데, 묵시문학은 보다 후대의 작품?
- 이런 이유로 비평학자들은 이사야서의 약 2-40 %만이 이사야의 원래 작품이고 나머지는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결론내림.
- 선지자는 과연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한 비평학자들의 좁은 견해가 불행한 결론에 도달하게 했다.

- 현재의 흐름은 B.S. 차일즈의 정경 비평에 입각해서 이사야서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간주하여 이해한다. 물론 단일 저자에 의한 통일성이라기 보다는 편집 과정에 따른 통일성을 주장하지만, 결국 한권으로 이해하려는 보수진영의 이해와 비평가들의 이해가 현재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본 상태다.

이사야서의 구분

	제 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 3 이사야
연대	주전 8세기	주전 6세기	주전 5세기
시대	히스기야	포로귀환	느헤미야
	세상을 따르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경고	포로가 된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선포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할 백성들
	앗시리아의 위협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시대 포로귀환 공동체의 정체성

문학적인 특징

- 1장: 이사야의 이상
- 2-12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 13-27 바벨론과 열방에 대한 경고
- 28-35 화로다
- 36-39 히스기야
- 40-66 이스라엘의 회복

왕들 이야기

- 이사야 6-8장과 36-39장은 모두 산문체로 구성 (이사야서는 대부분이 시)
- 아하스왕과 히스기야 왕을 대조

두 이야기의 상관관계

- 두 왕이야기는 모두 적군과의 전쟁 상황을 묘사
 - 이사야가 아하스를,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대하는 장소가 동일하다.
 - 두왕은 위협 가운데 심각한 번민을 함
 -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
 - 구원을 위한 징조
 -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
 - “그 날”에 대한 반복적 강조를 통해 두 왕의 시대 이후에 있을 불안한 미래를 예견함
- 아하스의 길과 히스기야의 길!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열국을 의지할 것인가?

1-12장

- 1-5장
 - 이스라엘의 연약적 불순종에 대한 심판
 -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연약적 저주의 실현
 - 심판의 이유: 종교적 의식주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2장과 4장)
 -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 의와 공의 (사5장 7절)

7-12장

- 7-9장은 모두 “한 아이”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
 - 아하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표징으로 “임마누엘”이 약속됨
 - 8장에 언급되는 임마누엘은 단순한 한 아이의 출생의 연속이 아니라, 심판의 이미지를 가진다.
 - 9장에서 한 아이는 메시아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신다 (사9:6-7).
- 결국 임마누엘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기도 한다.
- 십자가의 이중적 의미

-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11장에 나타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메시아 왕에 대한 이미지로 발전되고,
- 메시아의 도래는 장엄한 찬양과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로 마무리 된다 (12장).
 -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참된 교회의 이상을 꿈꾸어야 할 자리.

-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 (이사야 13-23 장)
 - 총 14개의 신탁이 등장
 - 열방을 향해 그들을 경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냄
-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탄의 타락을 증거하는 본문인가? (14장)

심판과 구원 (사28-35)

- “화 있을진저” 단락의 반복으로 여섯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 불신앙을 버리라
 - 외국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라
 -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되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사야 40-55장

- 사 40-48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
 - 포로 귀환을 예언함: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 여호와와 종의 노래 (1) 이스라엘 백성들
 -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심
 -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
 -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
 -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150년 이후의 인물을 정확히 지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증거함.
 - 누가 참신인가? 누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가?

- 종의 노래 (2) 49장
 - 종은 날카로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존재
 -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실패하지 않을 것임
 - 이방의 빛의 사명을 부여 받음
- 시온의 노래 (1) (49:14-50:3)
 - 탄식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것
 - 시온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
 -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 종의 노래 (3) 50:4-9
 - 여호와의 특별한 종으로 여호와를 대변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압제를 이겨내는 종
- 시온의 노래 (2) 50:10-51:12
 - 깰지어다! 깰지어다!
 - 회복의 때에 시온의 자녀들은 다시 회복될 것
 - 더이상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 종의 노래 (4) 52:13-53:12
 - 종은 메시아로 종종 간주되어 왔고, 신약에서 예수님께 적용시켰음.
 - 고난을 통해 종의 정당성을 확보. 이전의 종의 개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미래적 종의 사역.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의로움을 입고 정의를 입게 된다.
 -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
- 시온의 노래 (3) 54:1-11
 -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딸들이 회복된다.
 - 시온은 불임, 수치, 버림받았으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 시온의 자녀들과 종들 (54:12-17)
 - 처음으로 시온의 노래와 종의 노래가 만나는 지점
 - 49-54장의 결론부
 - 회복된 시온의 자녀들의 사명이 곧 종의 사명을 이어받는 것으로 여호와와 종들이 되는 것이다.
- 55장의 마지막 잔치초청/언약 갱신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사야 55-66장

- 보다 미래적인 회복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소개
 - 새로운 공동체는 종말 공동체다. 이방인들이 함께 이 공동체에 들어오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 누구든지 여호와와 가르침을 받아 공평과 의를 행함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 이 공동체는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이 더 중요함
- 구속과 회복 (59-60장)
 - 영원한 평안과 번영의 시대
 - 종말 공동체로서 아브라함 언약의 실현
- 왕국의 현존 (61-63장)
 - 완전한 회복을 위해 새로운 이름을 받음
 -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선포함
- 마지막 기도와 응답 (64-66장)
 - 시온을 위한 긴 기도: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의 임재!
 - 의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 종말론적 회복 공동체

- 거룩하신 하나님
- 구원자 되신 하나님
-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붙들린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 여호와와 종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열방을 돌아오게 한다
